금주의 법구-〈장로게경〉
많이 배운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배운 것을 잊지 말라.
이것이 진정한 삶으로 가는 길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05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9월 3일) 2022년 9월 28일 수요일

코로나 위기는 기회 백만원력 모아 도약

키워드로 보는 조계종 제36대 집행부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임기가 9월 27일 종료된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이 지난 4년간 36대 집행부가 일궈낸 주요성과와 걸어온 길을 자료집으로 엮었다. '제36대 총무원장 벽산 원행스님 성과자료집 편찬위원회(위원장 삼혜)'가 발간한 성과자료집 '종단 안정과 화합, 한국불교 미래를 만들어 온 4년'은 그간 성과를 총 10개 분야로 정리했다.

또 36대 집행부의 발원과 중점 종책 기조 등을 함께 담아, 시작과 마지막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부록으로 원행 스님이 주요행사 및 법석에서 한 말씀원고와 주요 언론기사, 내외빈 면담 일지 및 간행물 발간 목록까지 첨부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성과자료집을 토대로 제36대 집행부의 주요 성과와 과제를 키워드로 정리했다.

종단 내부의 어려움 속 출범
'소통 · 화합' 종책기조로 안정
전세계 강타한 코로나19사태
또다시 직면한 사상초유 위기
희생 감내한 결단에 모범방역
사찰 고통 분담 · 비대면 구축

#위기 2018년 9월 28일 출범한 제36대 집행부는 시작부터 적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해야 했다. 前총무원장의 갑작스러운 궐석으로 종단 안팎의 혼란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총무원장 당선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한 원행 스님의 어깨에 무거운 책임이 놓였다. 36대 집행부에는 종단 혼란을 안정시키고 분열된 종도들을 화합시키는 한편, 조계종의 대외적 위상을 회복시켜야 하는 중차대한 책무가 주어졌다. 36대 집행부는 '소통과 화합'을 최우선 종책과제로 삼았다. 그리고 "화합과 혁신으로 미래불교를 열겠다"는 확고한 발원으로, 종단 안정을 넘어선 미래 발전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혁신과 승려복지, 교구중심, 문화창달, 교육과 포교, 사회 등을 과제로 삼아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원행 스님을 필두로 한 집행부 소임자들의 묵묵한 노력으로 종단은 빠르게 안정됐다. 그러나 또다른 위기가 닥쳤다. 바로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이다. 유례없는 바이러스 감염확산은 종교계 뿐 아니라 우리 사회, 나아가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은 그간 대면을 토대로 한 신행문화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했다. 36대 집행부는 숙고 끝에 전향적인 결단을 내린다. 방역지침 준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선제적으로 산문 폐쇄를 결의한 것. 대면 접촉으로 확산되는 바이러스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희생을 감내하는 과감한 행보에 나선 것이다. 1년 중 불교 최대명절인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자 연등행렬을 취소하고 봉축법요식 일정도 연기했다. 불교계의 수준높은 방역은 사회의 모범이 됐으며 국민들의 찬사, 정부의 감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일선사찰의 재정 악화, 불자들의 신행생활 중단으로 인한 후유증은 극심했다.

#기회로의 전환 36대 집행부는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여파가 한국불교의 위기를 예고했다면, 좌절하기보다 함께 원력을 모아 발전적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다. 대면 중심의 신행활동을 비대면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사찰 참배의 최소화 지침이 지속적으로 배포되는 가운데, 온라인을 활용한 법회 중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종단적 지원과 노력이 이어졌다. 불교가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오랜 지적이 무색할 만큼, 종단과 일선사찰, 신도들의 신행형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만에 급격한 변화를 맞았다.

〈3면에 이어서〉

2022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 B1~4면



9월 21일 조계종 종정 예하 성파 대종사를 비롯해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과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 등 스님들과 김진표 국회의장, 주호영 국회 정각회 회장, 이원욱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 등이 본회의장 단상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파 대종사의 이번 국회 방문은 조계종 종정 스님으로는 사상 최초로 이뤄졌다. 사진제공=조계종

조계종 종정예하, '사상 최초' 국회 방문

성파 대종사, 9월 21일 김진표 의장 등에 '화합 · 소통' 당부

정각선원 현판식 제막도 진행
정각회 법회선 국민격려 법문
"매화향 피어나듯 인내 해야"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9월 21일 조계종 종정으로서 사상 최초로 국회를 방문했다. 성파 대종사는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화합'과 '소통'을 당부했다.

이번 성파 대종사의 국회 방문은 불자 국회의원들의 신행모임인 국회 정각회(회장 주호영)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성파 대종사는 국회 도착 후 먼저 국회 접견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등과 차담을 나눴다. 이어 국회 대회의장을 비공개로 둘러보았다. 또 성파 대종사는 국회 법당인 정각선원(正覺禪院) 현판식에 참여한 후 정각회 법회에서 국난 극복과 국민 화합을 주제로 법문했다.

성파 대종사는 법회서 '매화향'을 사례로 들며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위기상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들의 마음가짐에 대해 설했다.

성파 대종사는 "뼈에 사무치는 겨울을 이겨내야만 매화 꽃 향기가 코를 찌르기 마련"이라며 "우리가 현재 여러 가지 고난, 특히 경제난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그런 아픔이 있어도 참고 견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파 대종사는 "우리가 정치인 등 남탓을 하는게 아닌 각자 열심히 정진하면 언젠가는 매화처럼 코를 찌르는 향기를 토할 그런 때가 분명히 온다"고 희망을 전했다.

주호영 정각회장을 비롯한 정각회 국회의원들에게는 "민족을 위한 보살행을 하고 계시지만 더욱 더 보살행을 잘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차담 자리에서도 성파 대종사는 여야 화합 및 국민 통합을 당부하며,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불교문화를 비롯한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에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전했다.

성파 대종사의 국회 방문에는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과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 등 불교 대표 스님들과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등 재가불자들이 함께 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원욱 정각회 명예회장과 정각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나와 맞이했다. 또 통도사 등에서 300여 불자들이 방문 일정을 함께 했다.

법회 후 성파 대종사를 비롯한 사부대중은 국회 모임장소인 사랑재로 자리를 옮겨 오찬을 함께 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법회, 1만 대중 함께 한다

조계종, 10월 5일 조계사서 봉행
우정국로에 특설무대 설치 예정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법회는 10월 5일 1만여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법석으로 마련된다. 특히 제37대 총무원 운영기조를 토대로 불교중흥의 새로운 역사를 대내외로 선언해, 한국불교의 사회적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취지다.

조계종은 10월 5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 및 우정국로 특설무대에서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취임법회를 거행한다. 조계종 취임준비위원회는 9월 21일 3차 회의를 열고 취임법회 봉행에 따른 기본계획안을 이같이 확정했다.

취임준비위원회는 "개혁종단 이후 단일후보로 합의추대된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취임을 맞아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바탕으로 불교중흥의 새 역사를 사부대중과 함께 선언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취임법회는 1만여 사부대중과 함께 봉행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취임준비위원회는 합의추대 기반을 마련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과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을 취임법회 봉행위원으로 위촉키로 했다.

진우 스님의 임기는 9월 28일부터 시작되지만, 10월 5일 취임법회를 기점으로 제37대 총무원 집행부 공식출범이 대내외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송지희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취임법회

일 시
불기2566(2022)년 10월 5일(수) 오후 2시

장 소
조계사 대웅전 특설무대 / 우정국로 특설무대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취임법회 봉행위원회

